

“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사사기 2장 2절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눈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_\_\_\_\_) 나 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삿 2:20)
3.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삿 2:10)  
① 가나안 거주민이 강해서                      ②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③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④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4.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_\_\_\_\_)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_\_\_\_\_)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삿2:4~5)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렘 10~12장)** 유다 백성들의 배도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라는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언약 준수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주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의 죄악을 범한 유다를 향하여 언약의 내용대로 저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를 듣고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밉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화요일(렘 13~15장)** 유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는 상징성이 강한 2가지의 비유와 3가지의 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유다의 멸망을 ‘색은 베 띠의 비유’와 ‘포도주 병의 비유’를 통해 열방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여 열방에 대한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만, 오히려 교만하고 부패하여 타락하고, 결국 자신들에게 주어진 구속사적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쓸모없이 버려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수요일(렘 16~18장)** 다시 한번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본주의적 삶을 사는 자와 세상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적 삶을 사는 두 인생의 결론을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실천적인 권면으로 안식일 성수를 촉구하고, 안식일 성수 여부가 유다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목요일(렘 19~22장)** 유다 왕국 말기에 유다 왕가와 왕들에 대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한곳에 모은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 모음집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지 못한 자의 비참한 종말을 강조합니다. 본 장은 바벨론의 제3차 침입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극적 최후를 예언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요일(렘 23~24장)** 유다의 멸망이 임박했던 시드기야 시대 말기에 쓰인 것으로, 2차 레에 걸친 바벨론의 유다 침공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바벨론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경고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토요일(렘 25~26장)** 거듭된 회개 권고와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열방의 심판은 바벨론으로, 바벨론은 메데와 바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일(렘 27~29장)** 바벨론 포로민과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귀환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망각합니다. 귀환의 들뜬 소망으로 인하여 포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일생 생활조차 포기한 채 방황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70년의 포로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임을 다시 강조하며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촉구합니다.



**\* 합심기도 :**

1. 말씀을 온전히 배우고, 지켜 행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570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윤석 전도사)